

The effect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on self-esteem and gender role Stereotypes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use of Latent Growth Model-

Sunyoung J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bout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on self-esteem and gender role stereotype during adolescence and to reveal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adolescents' gender role stereotype.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and condition variables. For this purpose, used the Second Grade longitudinal Panel data of Middle School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nd the latent growth model was analyzed 3,449 men and women adolescents' cases of the first, the fourth and the sixth wave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dministered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whether self-esteem mediates parental rearing behavior and male and female gender role Stereo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rect effect between variable factors show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parenting behavior of the second grader of middle school is, the more positive the self-esteem of male adolescents and the initial value of stereotypes of male gender role. It also affects the self-esteem of female adolescents and stereotypes of female gender roles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ale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decreased in influence by the rate of change of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self-esteem were statistically influenced to the male gender role stereotypes and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higher the self-esteem.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stereotypes of female gender ro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between the initial value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and initial stereotype of male gender role, but there was no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stereotypes of female gender roles and there was no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The effect of condition variable gender was found that female adolescents are more affected by parental rearing behavior than male adolescents and also affected by the growth process.

The monthly income of households influenced the initial value of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showed a difference in parental rearing behavior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the higher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the more the self-esteem of male adolescents was affected.

▶ Keyword: parental rearing behavior, self-esteem, gender role stereotype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latent growth model

• First Author: Sunyoung Ju, Corresponding Author: Sunyoung Ju

*Sunyoung Ju (sunyu3@hanmail.ne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9. 05. 20, Revised: 2019. 06. 14, Accepted: 2019. 06. 14.

I. Introduction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과 성역할고정관념은 개인의 심리적 속성에 영향을 미쳐 이후의 삶의 틀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변명숙 외(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역할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모와의 애착과 의사소통 같은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형성과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신뢰와 긍정적 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함께 사회화 과정에서의 부적응적 모습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회화 과정에서 남녀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이슈로 청소년기에 어떻게 성역할을 인식했느냐에 따라 이후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남녀간 조화와 평등의 관계를 지향하기도 하고 역할 갈등이나 충돌과 같은 사회문제로 표출할 수도 있다.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양성평등과 최근 활발하게 찬반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속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성평등 및 관련 조항들은 성차별의 지양, 성역할고정관념의 탈피 및 성인식의 변화를 꾀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인식과 변화를 살피고 자존감의 이들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주요한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피는 것은 시기적 논의에 대한 근거로 그 필요성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를 시작하는 대학생 시기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청소년기의 자존감의 변화와 남·여성역할의 변화양상을 보기 위해 횡단적 특성 조사보다는 개인의 발달양상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자료(panel data)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2][3][4] 역동적인 개인의 성장발달과정의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화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화 하는데도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YPS 자료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자존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성역할고정관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자존감은 부모양육행동과 성역할고정관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넷째, 자존감과 성역할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요인은 이들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Parental Rearing Behavior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은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항목으로 정의 하였다. 부모양육행동은 부모 및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전반적이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5] 자녀의 지적이며 정의적 특성은 부모 및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어떠한 양육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 그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반응들을 자녀양육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Hirsch의 사회통제이론은 부모의 애착과 상호작용을 가장 일차적인 것으로 보았고, 이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 보았다 [6]. 또한 [7]노성호(2006), [8]정소희(2007)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해 부모 감독이 잘 이루어질 경우 자녀들의 문제들을 잘 파악하여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활발할 때 부모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었는데,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9] 부모의 감독정도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1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의 특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1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부모양육행동은 부모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감독 등 3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지표는 여러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는 항목무기방법(item parceling)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항목무기는 여러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여 지표의 수를 줄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항목무기를 하면 모형을 주요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례수당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추정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Kline, 1998).) 측정모형과 분석 시에는 각 지표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는 각각 .81, .79, .87로 나타났다.

2.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느낌으로 정의된다 [14][15][16].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초기 아동기 때 자아 평가를 시작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7]Rosenberg(1979)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존경의 정도,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는 정도로 자아존중감을 정의했다. [18]어주경(1999)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특질에 대한 자기평가의 신념으로써 개인의 심리상태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성격구인을 자아존중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존중의 느낌을 내면화 한 정도로 정의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는 $\alpha = .734$ 였다.

3. gender role stereotypes

성역할은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신체적 구분에 비례하는 사고, 정서, 행동 등을 요구하는 기대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할에 동일시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성역할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여겨 왔다(통합논술 개념사전 2007). 그러나 성역할 사회이론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은 고정관념일 뿐이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행해진 사회화의 산물로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사회적 관습과 교육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양육행동과 자녀의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1]이숙(1986)의 연구는 아동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개인의 생애에 정신적 자원의 공급을 책임지며 동시에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자녀에게 능동적인 피드백과 자극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성역할고정관념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19][20][21][22][23]. 인간 내면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자존감은 인간의 건강한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고정관념은 부모양육행동 및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대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성역할고정관념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은 부모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인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가지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정체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성장에 의해 일정부분 유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성역할고정관념은 [24]Broverman 외(1972)에 의하면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한다. 남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과 여성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내용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은 성취와 리더십, 표출 등을 강조하며,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은 역할과 순응 등을 강조한다. 본 패널 자료를 이용한 [25]구정화(2009), [26]좌현숙(2014)의 연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사용하였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분리하여 분석대상자들이 응답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여성성 .72, 남성성 .74였다.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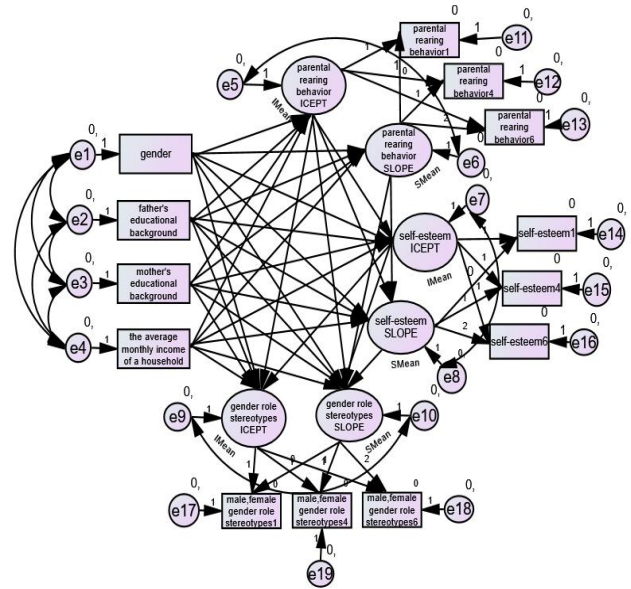


Fig. 1. Measurement model of latent variables

2. Data Collection and Measuring the Variables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KYPS) 자료 중 3년 간격으로 조사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패널 1차, 4차, 6차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차 패널, 고등학교 2학년(4차) 패널, 대학교 1학년(6차)에 걸쳐 응답한 3,449명이다. 청소년패널의 표본추출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제주도도를 제외한 전국의 12개 특별시, 광역시·도별 초등학교 4학년 2,949명, 중학교 2학년 3,697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연 1회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본 연구는 이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기 동안 부모양육행동과 자존감이 남성·여성성역할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으며,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4.0과 AMOS 24.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먼저는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성역할고정관념의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상관계수(Pearson's r)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χ^2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27], 주요변인의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으로 발생함을 가정하고 있지만, 한 변수의 결측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도 미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8]. 연구의 검증 절차는 첫째, 단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각 변인들이 보이는 발달궤적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된 가설인 부모양육행동이 성역할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Sobel검증을 통해 부모양육행동과 자존감이 성역할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와 자존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V.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동안 부모양육행동과 자존감이 남성·여성성역할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델(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적용하여 6년 종단자료 중 1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로 부모양육행동이 자존감과 남성·여성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 곡선을 모델링하기 위해 무조건 모델(un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였다. 각 변인별 잠재성장 모델에는 두 개의 잠재변인(초기값과 변화율)이 포함된다. 초기값(intercept)은 1회기(중학교 2학년)에서 측정된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남성·여성 성역할고정관념의 초기값을 의미하며, 변화율(slope)은 변화의 속도 즉, 6년간 3회기의 주요 변인들의 변화 추이를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은 모두 자료에서 추정된 평균과 변량을 갖는다. 초기값의 평균은 1회기에 측정된 주요변인들의 평균을 의미하며, 초기값의 변량은 초기치의 개인차를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은 각 변인에서 개인의 변화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변화율의 변량은 이러한 변화와 개인차를 의미한다.

청소년 변인의 6년간 3회기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발달궤적을 찾아내기 위해 2가지 변화모형을 가정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델1은 무변화 모델(no-growth model)로 6년간 3회기동안 변인들의 변화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모델이다. 모델 2는 선형변화모형(linear growth model)로 6년간 3회기 변인들이 선형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변화율의 측정회기별 요인계수를 0, 1, 2로 부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모델 중 각 변의 발달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각 단변량 모델들을 결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델을 설정하였다. 부모양육행동 초기값 및 변화율이 자존감 및 남성·여성 성역할고정관념의 초기값 및 변화율에 이르는 경로계수를 추정함으로써 한 영역의 변인이 다른 영역의 변인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29].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단변량 잠재성장모델의 분석에서 추정된 값으로 고정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영역 간 다변량 잠재성장모델에 기초하여 예측요인을 포함하는 다변량 조건모형을 설정하였다. 1회기에서 측정된 개인, 부모, 가족 관련 변인들이 개인간 예측요인으로 투입되어 이들 변인이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남성·여성 성역할고정관념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여기서 자아존중감 및 남성·여성 성역할고정관념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종속변수가 되며,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부모양육행동 초기값과 변화율과 남성·여성성역할고정관념의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에서의 매개경로계수도 함께 추정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모형에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학력, 가구월평균소득이 시불변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그림 1]에 최종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V. Analytical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Sample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로는 남학생이 50.0%, 여학생이 50.0%로 각각 절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아버지·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분석대상 청소년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평균 약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행동 평균은 중2에 3.3027, 고2에 3.4499, 대1에 3.5127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평균은 중2에 3.1610, 고2에 3.3368, 대1에 3.5329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남성·여성 성역할정체감은 남성성역할정체감에서는 중2에 3.2450, 고2에 3.4522, 대1에 3.5895로 점차 증가하였고, 여성성역할정체감은 중2에 2.2936, 고2에 2.3258, 대1에 2.2857로 중2에서 고2는 증가하였다가 대1시점에 감소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이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연구의 주요변인은 정규성기준치(왜도 < 3, 첨도 < 10, Kline 2005)를 충족하였다.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4.0과 AMOS 24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부모양육행동과 대2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및 남성·여성 성역할고정관념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학력은 모학력과 자아존중감1, 자아존중감4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학력은 부모양육행동4와 자아존중감1에서 유의미하였고, 가구월소득은 부모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양육행동은 여성성역할고정관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성성역할고정관념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은 여성성역할고정관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성들은 부모양육행동과 상관관계가 더 있고, 남성들은 자존감과 남성성역할고정관념과 더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양육행동이 긍정적인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이 긍정적인수록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과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성성역할고정관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의 변인 모두 무변화모형에 비해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 각각에 대한 중2~대1까지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은 추정과정에서 선택된 선형변화모형을 통해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의 변화양상과 개인차를 검증하였다.

부모양육행동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는 -.037로 매우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p < .05$), 부모양육행동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행동의 초기치

Table 1. Comparison of model fit of each variable

		$\chi^2(df)$	NFI	CFI	RMSEA
parental rearing behavior	no-growth	462.274(6)	.722	.726	.149
	liner growth	72.595(3)	.956	.958	.082
self-esteem	no-growth	1126.836(6)	-.012	.000	.233
	liner growth	88.466(3)	.921	.923	.091
male gender role stereotype	no-growth	684.056(6)	.344	.348	.181
	liner growth	138.653(3)	.867	.870	.115
female gender role stereotype	no-growth	70.373(6)	.940	.945	.056
	liner growth	48.171(3)	.959	.961	.066

*: p<0.05 **: p<0.01 ***: p<0.001

Table 2. The parameter estimates of the un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or each variable

	ICEPT		SLOP		Correlation between ICEPT and SLOP
	mean	dispersion	mean	dispersion	
parental rearing behavior	3.317...	.221...	.105...	.019...	-.037...
self-esteem	3.158...	.163...	.186...	.013...	-.029...
male gender role stereotype	3.257...	.291...	.172...	.021...	-.055...
female gender role stereotype	2.306...	.255...	-.004...	.010...	-.034...

*: p<0.05 **: p<0.01 ***: p<0.001

Table 3. Model fit of multivariate potential growth model

	$\chi^2(df)$	NFI	CFI	TLI	RMSEA
Self-Esteem (Male Gender Role Stereotypes)	671.943(36)	.887	.892	.765	.072
Self-Esteem (Female Gender Role Stereotypes)	794.995(36)	.881	.885	.752	.078

*: p<0.05 **: p<0.01 ***: p<0.001

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부모양육행동의 정도와 대1까지의 변화에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p<.05)

자이존증감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보면, 중2시점의 자이존증감 예측평균은 3.158이었고, 자이존증감 평균변화율은 .186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이존증감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이존증감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029로 부적상관을 보였고(p<.001), 이는 중2의 자이존증감이 높은 청소년은 대1까지의 변화의 정도가 느리고 중2의 자이존증감이 낮은 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이존증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자이존증감의 정도와 대1까지의 변화에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p<.001).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의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중2의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예측평균은 3.257로 나타났고, 남성성역할고정관념 평균변화율은 .17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성성역할정체감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055로 부적상관을 보여(p<.001), 중2의 남성성역할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후 대1까지의 변화 정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성역할정체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5년 동안 남성성역할정체감 정도와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여성성역할고정관념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중2시점의 여성성역할정체감 예측평균은 2.306이었고, 여성성역할고정관념 평균변화율은 -.004로 매우 약한 변화율을 보였다. 이는 중2이후 대1까지 5년 동안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성성역할정체감이 아주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성역할정체감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034로 부적상관을 보여(p<.001) 여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치가 높을수록 증가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중2의 여성성역할고정관

념이 높을수록 대1까지의 변화정도가 느리거나 거의 변화가 없으나, 중2의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이 낮은 경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한다고 추정 가능하다. 여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5년 동안 여성성역할고정관념 정도와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p<.001)

3. Verification of effect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1) The fit of the mediation model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중기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자이존증감,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인과적 관계 및 매개관계를 분석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자이존증감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chi^2=671.943$ (p<.001)이었다.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χ^2 의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χ^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 않았다. CFI는 .892(.885), TLI는 .765(.752)로 다소 낮으나, RMSEA는 0.72(0.78)로 수용가능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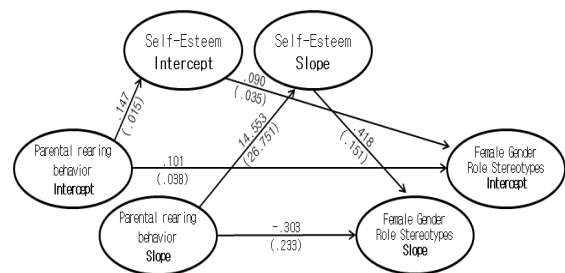


Fig. 3.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self-esteem model(male gender role stereoty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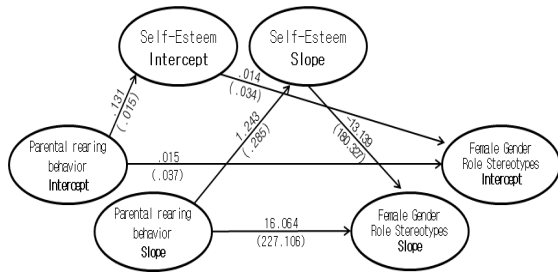


Fig. 4.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self-esteem model(female gender role stereotypes)

2) Direct effect analysis among variables

중2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의 각 변인 간 직접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표 4>에 제시하였고, 자아존중감 모형에서 직접경로는 <Fig 3>와 같다. 첫째, 중2시점에서 부모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90, p<.001).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2.674, p<.01) 남성성역할고정관념 변화값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2.127, p<.05). 셋째,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에 정적영향을 미쳤고(2.601, p<.01) 자아존중감 변화값은 남성성역할고정관념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2.769, p<.01).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중2의 부모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은 부모양육행동에 초기값이 클수록 더 높으며 부모양육행동의 변화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남성성역할고정관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조건변수인 성별은 부모양육행동 초기값과 자아존중감 초기값 및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여자청소년이 부모양육행동에 의한 영향이 더 있고, 남자청소년은 자존감과 남성성역할고정관념에 더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월소득은 부모양육행동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남자청소년의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2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의 각 변인 간 직접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아래<표 5>에 제시하였고, 자아존중감 모형에서 직접경로는 <Fig. 4>와 같다. 첫째, 중2시점에서 부모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8.767, p<.001)과 변화값(4.367,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부모양육행동은 여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성성역할고정관념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여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여성성역할고정관념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

Table 4. Parameter estimation of research model (male gender role stereotypes)

				standardization coefficient	estimat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P
self-esteem	slope	←	parental rearing behavior	3.550	14.553	26.751	.544	.586
	slope	←	parental rearing behavior	-1.912	-.814	1.482	-.549	.583
	intercept	←	behavior	.156	.147	.015	9.590	***
male gender role stereotype	intercept	←	parental rearing behavior	.081	.101	.038	2.674	.007
	slope	←	parental rearing behavior	-.057	-.303	.233	-1.305	.192
	slope	←	behavior	-.114	-.063	.029	-2.127	.033
	intercept	←	self-esteem	.068	.090	.035	2.601	.009
	slope	←	intercept	.079	.046	.031	1.488	.137
	slope	←	slope	.325	.418	.151	2.769	.006
parental rearing behavior	intercept	←	gender	.226	.177	.019	9.159	***
	slope	←	gender	-.052	-.004	.011	-.380	.704
	intercept	←	father's education level	-.001	.000	.001	-.037	.971
	slope	←	father's education level	.126	.000	.000	.808	.419
	intercept	←	mother's education level	-.050	-.001	.001	-1.728	.084
	slope	←	mother's education level	.178	.000	.000	1.141	.254
	intercept	←	household monthly income	.151	.000	.000	5.830	***
self-esteem	slope	←	household monthly income	-.017	.000	.000	-.121	.904
	intercept	←	gender	-.233	-.172	.020	-8.512	***
	slope	←	gender	.793	.264	.450	.588	.556
	intercept	←	father's education level	-.047	-.001	.001	-1.599	.110
	slope	←	father's education level	-.382	-.005	.013	-.380	.704
	intercept	←	mother's education level	-.071	-.002	.001	-2.407	.016
	slope	←	mother's education level	-.646	-.007	.016	-.445	.656
male gender role stereotype	intercept	←	household monthly income	.029	.000	.000	1.063	.288
	slope	←	household monthly income	.356	.000	.001	.408	.683
	intercept	←	gender	-.227	-.222	.028	-7.958	***
	slope	←	gender	.079	.034	.018	1.914	.056
	intercept	←	father's education level	.034	.001	.001	1.129	.259
	slope	←	father's education level	-.064	-.001	.001	-1.513	.130
	intercept	←	mother's education level	-.039	-.001	.001	-1.294	.196
parental rearing behavior	slope	←	mother's education level	.071	.001	.001	1.692	.091
	intercept	←	household monthly income	.038	.000	.000	1.373	.170
	slope	←	household monthly income	-.036	.000	.000	-.930	.353

*: p<0.05 **: p<0.01 ***: p<0.001

Table 5. Parameter estimation of research model (female gender role stereotypes)

				standardization coefficient	estimat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P
self-esteem	slope	←	parental rearing behavior	.984	1.243	.285	4.367	***
	slope	←	parental rearing behavior	-.097	-.037	.021	-1.783	.075
	intercept	←	parental rearing behavior	.165	.131	.015	8.767	***
male gender role stereotype	intercept	←	parental rearing behavior	-.012	.015	.037	.408	.683
	slope	←	parental rearing behavior	10.793	16.084	227.106	.071	.944
	slope	←	parental rearing behavior	-1.264	-.562	7.469	-.075	.940
	intercept	←	self-esteem	.009	.014	.034	.408	.683
	slope	←	self-esteem	.672	.376	5.363	.070	.944
	slope	←	self-esteem	-11.139	-13.139	180.327	-.073	.942
parental rearing behavior	intercept	←	gender	.204	.156	.019	8.103	***
	slope	←	gender	.098	.022	.011	1.991	.046
	intercept	←	father's education level	-.003	.000	.001	-.104	.917
	slope	←	father's education level	.061	.001	.000	1.077	.282
	intercept	←	mother's education level	-.054	-.001	.001	-1.839	.066
	slope	←	mother's education level	.077	.001	.000	1.366	.172
	intercept	←	household monthly income	.142	.000	.000	5.410	***
	slope	←	household monthly income	.053	.000	.000	1.054	.292
self-esteem	intercept	←	gender	-.283	-.171	.019	-8.797	***
	slope	←	gender	.114	.033	.018	1.808	.071
	intercept	←	father's education level	-.058	-.001	.001	-1.690	.091
	slope	←	father's education level	.020	.000	.001	.284	.776
	intercept	←	mother's education level	-.086	-.002	.001	-2.488	.013
	slope	←	mother's education level	.012	.000	.001	.168	.867
	intercept	←	household monthly income	.037	.000	.000	1.177	.239
	slope	←	household monthly income	-.038	.000	.000	-.608	.543
male gender role stereotype	intercept	←	gender	-.538	-.502	.025	-20.151	***
	slope	←	gender	1.625	.551	6.842	.081	.936
	intercept	←	father's education level	-.013	.000	.001	-.449	.653
	slope	←	father's education level	.285	.004	.045	.081	.936
	intercept	←	mother's education level	-.014	.000	.001	-.481	.630
	slope	←	mother's education level	.220	.002	.029	.085	.932
	intercept	←	household monthly income	-.044	.000	.000	-1.699	.089
	slope	←	household monthly income	-.461	.000	.005	-.075	.940

*: p<0.05 **: p<0.01 ***: p<0.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male gender role stereotypes)

mediation effect rout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P	Zab
parental rearing behavior intercept→ self-esteem intercept→ male gender role stereotype intercept	0.011	0.013	0.0129	2.487*
parental rearing behavior slope→ self-esteem slope→ male gender role stereotype slope	1.154	6.083	0.593	0.534

*: p<0.05 **: p<0.01 ***: p<0.001

Table 7. Mediating effect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female gender role stereotypes)

mediation effect rout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P	Zab
parental rearing behavior intercept→ self-esteem intercept→ female gender role stereotype intercept	0.001	0.002	0.681	0.411
parental rearing behavior slope→ self-esteem slope→ female gender role stereotype slope	-10.961	-16.332	0.942	-0.073

*: p<0.05 **: p<0.01 ***: p<0.001

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중2의 부모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지며, 중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성역할고정관념과 달리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은 부모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는 조건변수인 성별은 부모양육행동 초기값과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초기값 및 여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여성이 부모양육행동에 더 영향을 받고 성장에 따른 변화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자존감과 남성성역할고정관념에 더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월소득은 부모양육행동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남자청소년의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Indirect effect)

최종적인 분석과정에서 자존감이 부모양육행동과 남성 및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모양육행동의 초기값은 자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남성 및 여성성역할고정관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방법 (<https://www.danielsoper.com/statcalc/calculator.aspx?id=>

31)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표 7>에 제시하였다.

자이존증감의 매개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 행동 초기값이 자이존증감 초기값을 매개로 남성성역할고정관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결과,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ab=2.487^*$, $p<.05$). 이때 부모양육행동 초기값이 남성성역할 고정관념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므로 (2.674 , $p>.01$) 자이존증감 초기값은 부모양육행동 초기값과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부모양육행동 변화율이 자이존증감 변화율을 매개로 남성성역할고정관념 변화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ab=0.534$, $p<.05$). 또한 부모양육행동 변화율이 남성성역할고정관념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1.305 , $p<.05$) 중단적인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부모양육행동초기값이 자이존증감 초기값을 매개로 여성성역할고정관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결과,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ab=0.411$, $p<.05$). 또한 부모양육행동 초기값이 여성성역할 고정관념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408$, $p>.05$) 자이존증감 초기값은 부모양육행동 초기값과 여성성역할고정관념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부모양육행동 변화율이 자이존증감 변화율을 매개로 여성성역할고정관념 변화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ab=-0.073$, $p<.05$). 또한 부모양육행동 변화율이 여성성역할고정관념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071$, $p<.05$) 중단적인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과 근사치를 보이고 있어 효과가 아주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는 중2학년부터 고2학년, 대1학년까지 5년간 3,449명 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자이존증감, 남성·여성성역할고정관념의 발달궤적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중단적 구조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변인들이 갖는 변화의 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관계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부모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그 영향에 대한 지각이 느리게 증가하거나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부모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이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중2에서 이후 대1까지의 변화가 개인차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양육행동의 부정적 영향이 자이존증감과 성역할고정관념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적 인지적 행동에 지각되고, 부정적인 동질적 영향을 받았더라도 청소년의 연령이나 성별, 가구월소득,

어머니의 학력과 같은 다른 변인의 관련성에 따라 그들의 생각과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쳐 개별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부모양육행동 초기값과 남성성역할고정관념 초기값 사이에서 자이존증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초기 부모양육행동이 자이존증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따라 청소년의 남성성역할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그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여성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통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성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재정의가 일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30].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부모들에게 청소년기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양육행동에 더 영향을 받고 성장과정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1]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월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양육행동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자존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이 자존감과 남성성역할고정관념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행동의 지각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1] Myong Sook Byon, Ok Lyon Sung, "The Effects of Parent's Gender Roles, Child-Rearing Practices, and the Sex of Child on Children's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o.1, pp. 108-109, June 2005.
- [2] Yang, Jeong hye, "A Longitudinal variation of Sex-role Stereotyp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5, No. 1, pp.185-204, March 2012.
- [3] Hyun suk Jwa, "Gender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gender role stereotyp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9, pp.237-263, Sept. 2011.
- [4] Yoo, Hae-Kyung, "Mediating Effect on Famine Identity of Sex Role Stereotypes Between Stress and Internalizing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8, No. 1, pp.67-85, Aug. 2011.
- [5] Nam, Sang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s cognitive style," doctoral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3.
- [6] Welch, Kelly., "Two major theories of Travis Hirschi," Class Presentation, June 1998.

- [7] No, Sung ho,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Peer and Delinquent Behavior ,"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pp.297-332, Dec. 2006.
- [8] Jung, So hee, "The Relativ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Emotional Problem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23, No. 6, pp.119-144, June 2016.
- [9] Lee, Kyung Lim, "The Effects of Attachment, Self-Esteem and Impulse Control on Adolescent Delinque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0, No. 8, pp.191-206, 2002.
- [10] Jeong Kyu-hyoung, Kim Hee-ju,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ffe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on juvenile delinquency -A comparison between two-parent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56, pp. 195-220, Dec. 2016.
- [11] Jung Ja Ko,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3, No. 2, pp.1-17, 2005.
- [12] Kim Doo-Sub, Min Su-Hong,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Upon Crime and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No. 1, pp.15-174, Dec. 1994.
- [13] Kim Young-Seok, Park Myung Sook, "Parenting as a Common Factor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Focusing on Adolescents' Drinking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 42, pp.83-106, Aug. 2000.
- [14] Harter, S.,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Eds.). Competence considered, pp.67-97. 1990.
- [15] Gecas, Viktor,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8, No.1, pp.1-33, 1982.
- [16] Wigfield, A., & Karpathian, M., "who am I and what can I do? Children's self-concepts and motivation in achievement situa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No. 26, pp.233-262. 1991.
- [17] Rog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18] Joo Kyeong Eo, Variables Influencing Children's Self-Esteem in Low Income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0, No. 2, pp.21-40, 1999.
- [19] Yoo, Ka Hyo,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Living Science Research, No. 20, pp. 51-62, Dec. 1994.
- [20] Kang Im-Jung, "The Study on Child's Sex Role Identity,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master thesi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6.
- [21] Ock Boon Chung, "Sex Role Identity and Self Esteem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24, No. 2, pp.123-137, 1986.
- [22] Spence, Janet T., Robert Helmreich, and Joy Stapp.,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2, No. 1: pp. 29-39, 1975
- [23] Whitley, Bernard E.,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4, pp.765-778, 1983.
- [24] Broverman, Inge K., et al.,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8, No. 2, pp.59-78, 1972.
- [25] Kyung Mi Kim, Hae Young Yang, "Development of Gender Schema & Its Differentiation: Multifactorial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No. 3, pp.1-20, 2005.
- [26] Jwa Hyunsuk,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2, pp.334-366, June, 2014.
- [27] Kline, R. B.,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2005.
- [28] Little, Roderick JA, and Donald B. Rubin., "The analysis of social science data with missing valu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 18, No. 2-3, pp.292-326, 1989.
- [29] Curran, Patrick J., Eric Stice, and Laurie Chass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 alcohol use and peer alcohol use: A longitudinal random coefficients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5, No. 1, pp.130, 1997.
- [30] So Jung Kim,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of Gender-Role Stereotyp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0, No. 36, pp.129-149. 2008.
- [31] Jun Ho Kim, "A Study on Female Delinquency.," Du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1, pp.153-177. 1995.

Authors



Sunyoung Ju received the M.S. in Social Welfare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1 and received Ph.D.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17. She was working as a lecturer of Chosun University. And She is studying Counseling Psychology in Chosu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Practice Welfare and Counseling Psychology.